

2016년도 재정 전망과 운용 방향

1. 2016년도 재정전망

- 최근 내수 회복세 영향으로 호전될 전망이나 부동산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치하는 가운데 낮은 물가상승세, 그리스 사태 등 국제경기의 불안정으로 큰 폭의 세입 확대는 기대하기 곤란
- 국세의 세입여건 개선등으로 이전재원 수입도 다소 증가가 예상되나 내국세 결손에 따른 교부세 정산분 감액과 대·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2015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
- 세출 수요는 취약계층 보호, 일자리 창출 등 복지정책 확대와 다양한 복지욕구 표출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 관련 지출 수요 증가와 지역개발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 수요는 지속 증가

2. 지방재정운용 여건

① 세입전망

- (지방세) 주민세, 재산세, 자동차세는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국내 경기의 장기 침체로 지방소득세와 체납세의 감소에 따라 지방세 총액은 5%내 소폭 상승
- (세외수입)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세외수입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

- (지방교부세) 정부의 지방교부세 총액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내국세 감소분 반영과 배분방식 변경에 따라 2015년 수준 전망
- (국·도비보조금) 화물공영차고지 건설, 도시재생사업, 도서 기반 확충사업과 기초연금, 장애인연금, 기초생활보장 개별 급여 시행 등 주요 복지제도 개편으로 지속 증가될 전망

② 세출전망

- 국민행복연금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복지 투자 확대, 노인·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확대 등 정부시책에 따른 세출수요 지속 증가
-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여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될 가능성 높음
- 지속적인 복지비 증가는 도로건설 및 지역개발 분야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나 신규사업을 최대한 지양하고 마무리 위주 및 주민 수혜도를 감안한 재정 배분 노력

3. 2016년도 재정 운용방향

-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「주민 중심의 재정, 행복한 자치」 구현을 위해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강화와 재정 지출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건전 재정 운영
- 일자리 창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화사업 적극 발굴 및 투자 확대와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생활 안정 도모
- 신성장 동력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원 배분

예 산 총 칙

제1조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도액
계	648,209,700	22,077,291
일반회계	533,010,297	15,990,309
특별회계	115,199,403	6,086,982
기타특별회계	21,540,124	646,204
· 주택사업특별회계	773,020	23,191
· 교통사업특별회계	16,538,204	496,146
·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	3,892,774	116,783
· 기반시설특별회계	336,126	10,084
공기업특별회계	93,659,279	5,440,778
· 상수도사업특별회계	22,100,000	663,000
· 하수도사업특별회계	59,259,279	1,777,778
·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	12,300,000	3,000,000

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”과 같다.

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“해당없음”

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“계속비사업조서”와 같다.

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“명시이월사업조서”와 같다.

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,650,410천원으로 한다.

제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